

순일한 공부심과 평상심으로 일관한
따듯하고 훈훈한 교화자
융산 김법종 종사(隆山 金法宗 宗師, 1937-2019)

교화를
교화(教化)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되도록,
기독교는 예수님이 되도록,
원불교는 대종사님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화입니다.
대종사님과 같이 말하도록 가르치는 것,
대종사님과 같이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
대종사님과 같이 마음 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원불교 교화의 핵심입니다.

본격적인 원불교 남자 교화자 시대의 문을 열었던
융산 김법종 종사의 교화론이다
심화(心和)·인화(人和)·기화(氣和)를 생활 표준으로 만나는 인연들마다
불공의 정성을 다했던 청빈하고 검소한 수도자
융산 김법종 종사는 일생을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스승님들이 밝혀주신 교법을 끊임없이 연마하시며
'일생을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하나 되신 삶으로 일관하며
가는 곳마다 맑고 밝고 훈훈한 법풍을 불러일으키셨다.'

가는 듯 오는 듯 한결같은 초심으로
우는 소리 군소릴랑 하지를 말고
정다운 도반들과 선문답하며 심화 기화 인화 불공하는 것
더없이 곱게 늙는 심법이라오.

• 약력 | 1937년 5월 15일 전남 영광 출생 / 원기 42년 출가 / 광주 경주 청주 종로 둔산교당 근무 / 반백주년기념사업회 동산선원 수위단사무처 지리산운봉훈련원 대전원광수양원 교화훈련부 근무/ 청주교구장 서울동부교구장 역임/ 원기 73년 정수위단원 피선 / 원기 91년 종사 법훈 수훈

사진은 고르지 못함
여기에는 자료 사진들이 없어서